

경인사연·KDI 등 학계·연구기관도 2027년도 예산안 추진방향과 미래대응기금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

- 조용범 차관, "경제성장 견인과 재정건전성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 예산안"
- 잠재성장률 제고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학계·연구기관과 논의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9월 11일(금) 서울 엘타워에서 경제·인문사회 연구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주최한 「2027년 예산안 및 미래 대응기금 토론회」에 참석하여 2027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미래대응기금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학계·연구기관 등과 논의하였다.

< 2027년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 개요 >

- ▶ (일시) '26.9.11.(금) 14:00 ~ 18:00 ▶ (장소) 양재 엘타워 스포타임 멜론홀
- ▶ (참석)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김세직 KDI 원장(주최),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정향우 사회예산심의관, 김정애 예산정책과장,
이태석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우석진 명지대학교 교수, 이정혁 홍익대학교 교수,
박정흠 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제도분석팀장,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축사를 통해 “2027년도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지출에도 국가채무비율을 낮춤으로써 경제성장 견인과 재정건전성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였다”며, “미래대응기금은 단년도 예산의 한계를 넘어 미래를 위해 적립한다는 점에서 우리 재정 역사에 전례가 없는 제도”라고 밝혔다.

정향우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은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이번 예산안이 재정운용 패러다임을 혁신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하며, “과감한 재정투자로 성장의 물꼬를 트고 그 성장이 다시 재정 기반을 튼튼히 하는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절감액은 교육·인재계정에 별도로 적립하여 영유아·고등교육 및 인재 육성 등에 투자하고, 교육 분야 전체 투자 규모가 줄어들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종합 토론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2027년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의 취지에 공감을 표하고, 잠재성장률 제고와 재정 지속가능성을 균형 있게 모색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특히, 미래대응기금 설계의 보완 과제, R&D 투자 전략,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청년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김정애 예산정책과장은 “반도체 등 특정 산업 의존도가 높아 세수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이를 완화·흡수할 재정안정화 장치로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였다”고 밝히며, 경기동행적 재정운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고 대규모 세수를 전략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재정제도 마련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하였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국회에 제출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등 관계 법률 제·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첨부1 :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축사

첨부2 : 기획예산처 발표자료(PPT)

담당 부서	예산실 예산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정애 (044-214-2330)
		담당자	사무관	김성훈 (shkim49@korea.kr)